

오므라이스를 만들자.

마지막으로 계란 후라이를 올린다.

냉장고를 열자, 왼쪽 수납함에 다양한 소스들이 보인다.

무엇으로 화룡점정을 찍을까?

문득 마요네즈가 눈에 들어온다.

뿌직

요란한 소리가 나지만 나오는 것은 없다.

쪽쪽

자신의 것을 뺏내고 싶을 텐데,

할 말이 있는 것이 투명한 통속에 뻔히 보이는데

절제하는 그

마요네즈도 참고 있는 것은 아닐까?

.
. .
.



구멍_210x297mm_종이에 펜_2019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소통에 관한 사전적 정의이다.

문득 마요네즈, 케첩을 비롯해 포장되어 나오는 다양한 소스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다.

대화를 하다가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로 형용할 수 없어 참는다거나, 상대방에게 한 소리 하고 싶는데,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염려되어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말이다. 그 이유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하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소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참아 내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어렸을 때에는 논리 있고,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 했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보며 침묵이 때로는 더 강한 힘을 지닌다고, 더 소통다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고 담담하게 냉장고에 열을 맞춰 있는 그들,

나도 그들을 닮아가야지.